

NEWS 방송계 동향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4년말 기준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방송산업의 분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총 414개 사업자(중계유선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인터넷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방송사업 매출은 14조 7,229억 원으로 인터넷티브이(이하 “IPTV”)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14조 347억 원) 대비 4.9%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IPTV사업 1조 4,984억 원(33.2% 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 6조 3,067억 원(3.8% 증가), 지상파방송(DMB 포함) 4조 153억 원(2.8% 증가), 위성방송 5,532억 원(1.4% 증가)이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SO)은 2조 3,462억 원(1.4% 감소)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총 2,983만 단자(올레티브이스카이라이프 중복가입 234만, 중계유선 가입자 9.7만 포함)로 IPTV 가입자가 큰 폭(24.2%)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2,776만)대비 7.4% 증가하였다. 디지털방송 기

준으로는 IPTV 1,086만(24.2% 증가), 종합유선방송 713만(15.9% 증가), 위성방송 426만(1.9% 증가) 등 총 2,225만 단자로 전년(1,907만)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사자는 3만4,615명으로 전년(3만4,714명) 대비 0.3%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IPTV 645명(9.5% 증가), 위성방송 320명(4.2% 증가), 방송채널 사용사업 14,339명(1.2% 증가)인 반면, 지상파방송(DMB 포함)은 14,468명(0.5% 감소), 종합유선방송은 4,692명(5.1%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비용은 2조 5,401억 원으로 전년(2조 5,851억 원) 대비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자체제작비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등 수출 총액은 3억 1,381만 달러로 지상파방송사의 일본,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2억 8,776만 달러) 대비 9.1%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 총액은 5,934만 달러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1억 1,449만 달러) 대비 48.2%가 감소,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skyUHD 제작센터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2월 7일 'skyUHD 제작센터 개소식'을 갖고, 영상 편집과 시사, 데이터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120평 규모의 UHD 전용 제작 공간을 공개했다. 제작센터는 개인 편집실 6개, 종합편집실 2개를 비롯 4K UHD 자막실과 시사실, 공유 스토리지 서버실, 시스템 장비실 등으로 구성됐다. 제작센터의 편집·시사 시설 등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용토록 권장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방송 제작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MBC

‘MBC VR 컨소시엄’ 조인식 개최



MBC가 12월 11일(금) 상암동 본사 2층 M 라운지에서 국내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업계의 선두 기업들과 'MBC VR 컨소시엄' 조인식을 가졌다.

'MBC VR 컨소시엄'에는 MBC, 시공테크, 시공미디어, LG엔시스, 와이드비주얼, FXGear, 스튜디오더블유바바, 매니아마인드, 소닉티어, GCT 등 모두 10개 업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고 품질의 VR 콘텐츠 제작과 VR 관련 기술 공동 개발, VR 콘텐츠를 이용한 도심형 테마파크 건설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9월 VR 액션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VR'을 선보인 이후 꾸준히 VR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는 MBC는 제휴 업체들과 함께 전 세계를 겨냥한 VR 콘텐츠 기획·제작을 담당할 예정이다.

EBS

우종범 제8대 EBS 사장 취임



우종범 EBS 제8대 신임사장이 2015년 11월 30일 도곡동 EBS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우 신임사장은 “교육 공영방송의 역할은 방송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의 목적적인 개인의 인격적 성숙과 사회·경제·문화적 성장을 도와 교양인을 육성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EBS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 방송과 모바일의 융복합이라는 급격한 매체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조하였다. 우 신임사장은 EBS의 성장을 위해 “조직도, 업무관행도, 직업윤리까지도 필요하면 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재임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EBS의 도약을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BS

KBS, UFC 최초 중계



국내 최초로 KBS가 UFC 방송을 중계했다. 이번 중계는 UFC 'FIGHT NIGHT'라는 타이틀로 진행됐으며 김동현, 추성훈 등 국내 최고의 파이터가 열띤 경기를 벌였다.

OBS

OBS, 기술인협회 송년회



지난달 11일 OBS 기술인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있었다.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회계보고가 끝난 후 강형석 협회장은 한 해 동안 함께한 모든 협회원에게 감사를 돌렸다. 이번 송년회는 협회원들이 준비한 기증품 추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삼 연합회장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tbs

tbs 정찬형 신임 대표 취임



2015년 12월 17일 성경환 대표가 퇴임하고 12월 18일 정찬형 대표가 tbs 교통방송의 신임 대표로 임명받아 취임하였다.

정찬형 tbs 교통방송 대표는 취임사에서 “공익성과 대중성이 조화가 되는 방송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tbs를 만들어가겠다. 공공의 이익만 바라보고 그것에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방송을 지향하면 시민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보답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찬형 tbs 대표는 33년간 MBC에서 일하며 배철수의 음악캠프, 손석희의 시선집중, 푸른 신호등 등을 기획·연출한 방송 전문가로, 라디오본부장,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TV - France24 방송상호송출 MOU 체결



아리랑TV는 프랑스 국제방송사이며 영어뉴스 채널인 France24와 방송 상호송출 등 방송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MOU 체결식에서 France24의

지주회사인 France Médias Monde(FMM)와 방송교류 및 양국 방송간 상호송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양사는 한-불 수교 130년을 기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 및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유럽과 한반도에서 국제적인 이슈 발생 시 영상자료, 인터뷰, 브리핑 등의 취재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BBS

제6회 창작 찬불 동요제 개최



BBS 불교방송이 찬불동요 보급을 위해 마련한 제6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가 지난달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개최되었다.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는 찬불동요 보급을

통해 어린이들 마음속의 불성을 싹틔게 하고 보리심을 키워주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6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동요제에는 국악과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출품돼 심사 끝에 본선무대에 진출할 10작품이 선정되었다.

YTN

YTN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방송 서비스 실시



YTN은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YTN은 주중 매일 오후 1시에 편성된 정규 프로그램 '뉴스n이슈(2부)'의 수화 영상을 방송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실험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방송은 방송영상과 수화영상을 방송망과 인터넷망으로 각각 제공하고 수신기에서 두 영상을 동시에 한 화면에 재생하는 방식으로 수화영상의 크기·위치의 조정과 제거가 유료방송 매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 서비스를 통해 청각 장애인의 의견을 모은 뒤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오는 2017년까지 시범방송을 거친 뒤 2018년부터 본방송에 들어간다.